보도자료 [배포즉시] | 배포일 2026. 8. 24.(월) / (총 6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홍보담당 김소현 주무관(02-6263-9806) | 사업담당 이은선 연구원(02-6263-9807)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 개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I 시대 인공지능이 노인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조명하고 '연령 포용적 AI 전환' 방안 논의 예정

- 9.2.(수) 9:30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 (온·오프라인)
- AI가 노인의 건강·돌봄·자립과 사회참여에 가져올 기회와 함께 디지털 배제, 알고리즘 편향·차별, 개인정보 및 자율성 침해 등 새로운 인권 위험 논의
-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노인인권 부서장,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전(前) 의장 등 국내외 주요 전문가 참여
- 올해 유엔에서 노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법적 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이 출범한 가운데, AI 시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향 모색
- 유엔기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셈 회원국 시민사회·인권기구·정부 부처·학계 등과 노인인권 보호 증진 위한 활동 협력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 서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프레데릭 슈포어)와 공동으로 9월 2일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소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다.

□ 올해는 AI 시대 노인인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노인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인공지능이 노인의 삶과 인권에 가져올 기회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연령 포용적 AI를 통해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실천적 해법과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

○ AI와 디지털 기술은 건강관리와 돌봄, 사회적 연결, 이동성, 정보 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노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

○ 반면 AI 기술과 서비스가 노인의 경험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알고리즘의 연령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약화 등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됨

□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AI를 단순한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 AI가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특히 노인이 AI 전환의 수동적인 수혜자나 취약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의 설계·개발·활용 과정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연령 포용적 AI 전환(Age-Inclusive AI Transformation)'의 방향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을 즈베즈단 피르토셰크(Zvezdan Pirtošek)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가 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2026년 5월 임기를 시작한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절차 수임자로, 전 세계 노인의 인권 상황과 주요 현안을 살피고 각국과 국제사회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으로서, 국제노인인권의제를 전담하는 국제적 감시자이자 정책권고자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번 방한은 독립전문가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AI 시대 노인인권의 과제를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피르토세크 독립전문가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신경과 교수이자 임상의로, 인지신경학, 파킨슨병, 치매 및 노화 신경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음.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이러한 의학·신경과학적 전문성과 국제 노인인권의 관점을 바탕으로, AI가 노인의 건강·돌봄·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배제와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및 자율성 약화 등 새로운 인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노인이 AI의 설계와 활용 과정에 참여하며 존엄·평등·자율성·참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포용적 AI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 **본 포럼은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 AI가 노인의 인권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 (2) 연령 포용적 AI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술·혁신 사례, (3)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및 국제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세션별로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간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해 온 마가렛 영(Margaret Young) 세계노인인권연합(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GAROP) 전 의장도 참여한다. 마가렛 영은 제1세션 발표와 제3세션 토론에 참여하여 AI가

노인의 인권에 미치는 기회와 위험, 그리고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서정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AI는 잘 활용하면 노인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활용될 경우 오히려 차별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노인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들이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노인이 AI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 포럼 웹 포스터 1부 및 세부 프로그램 1부. 끝.

참고

〈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개요 〉

□ 행사개요

○ 주　　최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 일　　시 : 2026.9.2.(수) 09:00-17:00

○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 19층 브람스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 프로그램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세션1)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기회와 위험
- (세션2) 연령 포용적 AI의 실천: 정책, 기술 및 혁신
- (세션3)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

□ 논의 주제

○ AI가 노인의 건강, 돌봄,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제공하는 기회와 함께 AI 확산에 따른 연령주의, 디지털 배제, 개인정보 및 자율성 침해 등 인권 위험 논의

○ 노인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하는 AI 기술·서비스 및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노인이 AI의 설계와 활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연령 포용적 AI의 실천 방안 모색

○ 국제 노인인권 규범의 발전과 연계하여 AI 시대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적 과제 및 협력 방향 논의

□ 참여방법 : 현장 참여 및 온라인(Zoom) 참여

○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등록비 없음)

○ 실시간 온라인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가능

- 온라인 참여를 등록하신 분들께 이메일로 줌 링크 송부 예정
- 행사 종료 후 유튜브 채널에 포럼 녹화본 업로드 예정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 : https://asemgac.or.kr/bbs/bbs/view.php?bbs_no=20&data_no=11776&page_no=1&sub_id=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유튜브 : www.youtube.com/@agac7694

□ 포럼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09:30-10:2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0:30-12:00	세션 1.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기회와 위험
12:00-13:30	점심시간
13:30-15:00	세션 2. 연령 포용적 AI의 실천: 정책, 기술 및 혁신
15:00-15:15	커피 브레이크
15:15-16:45	세션 3.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
16:50-17:00	폐회식

□ 기관 및 포럼 소개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 서정하〕는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으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으며, 아셈 회원국의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센터는 노인인권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연구, 교류협력, 인식개선 및 교육, 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www.asemgac.org)

○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은 2021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정부기관 · 학계 · 시민사회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셈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노인인권 관련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음. 역대 포럼에서는 재난 및 긴급상황에서의 노인인권(제1차), 노인인권과 정신정서적 건강(제2차),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제3차),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제4차), 연령주의(5차)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노인인권 의제를 다뤄왔음

붙임 1 행사 공식 웹 포스터

The 6th ASEM Forum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resent and Future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owards Age-Inclusive 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



Hosts

ASEM Global Ageing Center I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Office I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Date

Wednesday, September 2, 2026 I 2026년 9월 2일(수)

Venue

Hotel President in Seoul, Brahms Hall(19F) I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 브람스홀(19층)

AGAC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 Global Ageing Cent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Programme

Opening Ceremony	개회식
Keynote Speech	기조연설
Session 1.	AI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Opportunities and Risks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기회와 위험
Session 2.	Age-Inclusive AI in Practice: Policies, Technologies, and Innovation 연령 포용적 AI의 실천: 정책, 기술 및 혁신
Session 3.	Towards Age-Inclusive AI Transformation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

Location

Due to limited parking space, we recommen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행사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Venue	Hotel President in Seoul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
Address	16 Euljiro, Junggu, Seoul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Tel	+82-2-753-3131



Contact

Please register by **Wednesday, August 26, 2026**(KST).
포럼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8월 26일(수)**까지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2026asemhropforum@gmail.com
Tel	+82-2-6121-6323

붙임 2 세부 프로그램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



2026년 9월 2일(수) I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 브람스홀(19층)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09:30–10:20 ('50)	**개회식** **개회사** · 서정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환영사** · 안창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프레데릭 슈포어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대만·중국·한국 및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대표) **축사** · 베아타 스토친스카 (아시아·유럽재단(ASEF) 사무총장)* · 산 륀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 사무차장)* **기조연설** ·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 (사진촬영)
10:30–12:00 ('90)	**세션 1.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기회와 위험** **좌장** · 브리짓 슬립 (휴먼라이츠워치 노인인권 담당 선임연구원) **발표자** · 마가렛 영 (캐나다 에이지노블(AgeKnowble) 설립자 / 세계노인인권연합 전 의장) ·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유스티나 스티핀스카 (베를린사회과학연구센터 교수)* · 캐롤 마 (싱가포르사회과학대학교 노년학 프로그램 교수) **패널** · 김기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2:00–13:30	오찬
13:30–15:00 ('90)	**세션 2. 연령 포용적 AI의 실천: 정책, 기술 및 혁신** **좌장** ·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 카타리나 다셀 (독일 VDI/VDE 이노베이션 + 테크닉 GmbH 산업정책 및 미래전략부 기술 연구위원) ·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AI 연구원 건강·돌봄AI센터장) · 알렉산더 엥겔 (독일노인단체연합(BAGSO) 프로젝트 리드)* · 나카고미 아쓰시 (일본 지바대학교 사회예방의학과 교수) **패널** · 미구엘 무스니 (아세안 사무국 빈곤퇴치 및 성평등 부서장)
15:00–15:15	커피 브레이크
15:15–16:45 ('90)	**세션 3.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 **좌장**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발표자**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치트랄레카 매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노인인권 부서장) · 바바라 바르보사 네베스 (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정치학부 교수)* **패널** · 마가렛 영 (캐나다 에이지노블(AgeKnowble) 설립자 / 세계노인인권연합 전 의장) · 이동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팀장)
16:50–17:00	**폐회식** **폐회사** · 최성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사전녹화 또는 온라인 참여

AGAC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 Global Ageing Center

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